

“기업 경쟁력이 지역 경쟁력”

임실군, 비즈니스 테이블 간담회... 경영 애로 해결 방안 논의

민선 6기 취임 이후 지역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기업 자생력과 경영역량 확보를 역점적으로 추진한 임실군이 기업, 전북TP전문위원, 관계공무원이 한 자리에 모인 테이블을 마련했다. 임실군과 전북테크노파크기업지원단은 20일 군청 2층 종합상황실에서 ‘비즈니스 테이블’ 간담회를 개최했다. 내래식품, 임실생약, 임실치즈농협, 푸르밀, 임진제강 등 지역을 대표하는 기업 11개소와 김형권 한일장신대 겸 임교수, 박병국 (주)효성 해외영업팀장 등 전북 TP 전문위원이 참여했다. 경영 애로사항을 기업대표가 발표하면 관련 전문가가 진단 및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상호 토론하는 형식으로 진행했다. 또한 기업과 전문위원의 개별상담을

통해 전문성을 높이고 추가적인 컨설팅은 일정을 조율해 지속적인 상담을 지원할 예정이다. 군은 우량건설 기업 유치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인구유입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꾀하고 있다. 이를 위해 기존 농공단지와 연계한 ‘임실 제2농공단지’를 조성했으며 약 10만평 규모의 ‘오수 제2농공단지’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지난달 17일 임진제강(주)과 추가 투자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오는 2020년 완공을 목표로 임실 제2농공단지 내 26만4천998㎡ 부지에 수원사업장 일부를 이전하고 2천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투자에 나선다. 300여명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비롯해 사업장 이전에 따라 부족한 사원

소수를 200실 규모로 신축한다는 계획이어서 지역 활황화에 청신호가 켜졌다. 특히 대규모 투자로 나후된 전북 동부권 균형발전과 더불어 치즈산업 활성화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임실군의 향후 긍정추진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심민 군수는 “지역기업의 경쟁력이 곧 지역의 경쟁력이다”며 “기업인이 희망을 가지고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혁신을 유도하고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기업이 한 단계 높은 수준의 생산력과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고 강도 높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임실군, 가뭄으로 인한 피해 최소화 ‘총력전’

대책 상황실 운영 강화... 저수율 등 매일 상황판 설치· 긴급사업비 14억원 투입

임실군이 최근 계속되는 무더위와 폭염으로 인한 가뭄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마련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20일 임실군은 봄부터 시작한 가뭄이 7월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가뭄대책 상황실 운영을 강화하고, 가뭄대책 사업비 14억원을 긴급 투입하고 현장행정을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가뭄대책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심민 군수는 이날 “가뭄대책반을 가동해 관내에 있는 202개의 저수지 저수율을 매일 확인하고, 상황판을 설치해 지역별 가뭄 동향을 매일매일 점검해 줄 것”을 주문했다. 심 군수는 특히 “물 부족에 따른 농가 피해를 줄이기 위해 중대형 관정 개발과 관정 유지보수사업, 소류지 보수사업 등을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며 “가뭄으로 인해 피해가 심한 지역은 민·관·군이 힘을 모아 물대기를 돕는 등 행정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대책을 강구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현재 임실군 관내 202개 저수지의 저수율은 43%를 나타내고 있다. 심각 단계는 아니지만, 이같은 가뭄현상이 지속될 경우를 대비한 대책마련에 분주한 상황이다. 군은 가뭄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 가뭄대책사업비 14억 1000만원



임실군이 최근 계속되는 무더위와 폭염으로 인한 가뭄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을 긴급 투입해 중·소형관정 굴착과 관유지보수사업, 소류지 보수사업 등을 신속히 진행했다. 군은 또 중소형 관정 38개소와 대형 관정 2개소, 에어씨던 37개소를 추가로 완료하는 등 가뭄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민·관·군간 협업을 통한 가뭄극복에도 힘을 모으고 있다. 군과 35사단은 19일과 20일 35사단과 함께 19일과 20일 양일간에 걸쳐 가뭄으로 모내기 및 논물마름으로 논바닥이 갈라지는 신덕면 울치지구에 민·관·군 합동으로 레미콘차량5대, 119소방차1대, 35사단 살수차1대 및 민간재민인 굴삭기 1대와 공무원을 포함한 인력 30여명을 투입, 물대기 작업을 실시했다. 이 현장은 심 군수가 직접 진두지휘하며 현장 피해상황을 점검하고, 모내기 물대기 작업을 하는 등 가뭄극복에 앞장섰다. 모내기를 마친 해당주민들은 35사단, 119소방센터, 레미콘회사 등에 고마움을 전달하기도 했다. 군은 앞선 1일에도 청용면 옥전지구 중 0.6ha에 농업용수가 없어 모내기를 못하는 논에 인근하천 하상을 굴착해 양수작업을 실시한 바 있다. /임실=진홍영 기자



‘문화가 있는 날’ 동춘서커스 공연

순창군, 28일 순창향토회관에서 중·장년층에게는 추억과 향수를 줌은 세대에게는 아트 서커스의 진수를 보여줄 동춘서커스 공연이 오는 28일 순창에서 열린다. 이번 동춘서커스 공연은 28일 순창향토회관에서 무료로 진행되며 오후 2시와 7시 2회 열린다. 공연 프로그램은 여자조형 탐방기, 모자 자글링, 서커스 발레, 줄돌리기, 링체조, 공중로맨스 등 전통적인 곡예와 묘기위주의 서커스 공연은 물론 예술성을 가미한 기계체조, 곡예, 무용, 미술, 음악이 결합된 초대형 아트서커스 프로그램도 진행돼 보는 이들을 서커스의 매력으로 이끌다. 동춘서커스 공연 관람을 원하는 주민들은 오후 1시부터 향토회관에 가면 무료 관람권을 받을 수 있다. /순창=이양원 기자

지역 소식통

임실군, 고물상 일제점검

임실군이 재황용수집상(고물상) 일제 점검을 오는 23일까지 실시한다. 군은 폐기를 방지 및 부적정 처리로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2,000㎡ 미만 사업장 10개소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취급품목 이외의 물질 취급행위, 폐기물 보관기준 및 방법, 법령 위반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한다. 경미한 사항은 현장 지도하고 폐기물처리업자 준수사항 등 주요 법령 위반행위는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폐기물 분리수거 등을 적정하게 처리하도록 유도해 나갈 방침”이라며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불법행위 근절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 실시

순창군은 오는 22일 2017년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을 실시한다. 이번 훈련은 군청사내 승강기와 광장에서 진행되며 승강기 이용객 갑툭 사고를 가상한 승객구조 훈련과 승강기 갑툭체험, 승강기 안전교육, 승강기 안전홍보 캠페인 등도 함께 진행된다. 또한 소방서, 승기기안관리공단 유지관리업체 등이 참여한 민관 합동훈련으로 진행되며 관내 승강기 안전관리자 및 재난예방 민간예찰단, 민간 소방대원 등이 참여할 계획이다. /순창=이양원 기자

24일부터 이틀간 ‘순창 블루베리 어울마당’

전국 최고의 맛과 품질을 자랑하는 순창블루베리를 맛보고 즐길 수 있는 2017 순창 블루베리 어울마당’이 오는 24일부터 25일까지 고추장 민속마을에서 화려한 맛 잔치를 연다. 특히 올해 블루베리 어울마당은 기존 구립 사골 시험포에서 진행된 행사를 고추장민속마을로 옮겨 관광객들의 접근성을 대폭 향상시키는 것은 물론 행사의 다양성과 규모화도 꾀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어울마당 행사는 전국최고 품질을 자랑하는 순창 블루베리를 소비자들이 만나보고 또 다양한 체험행사와 볼거리로 연결해 전국에 홍보하기 위해 진행된다. 4가지 테마별 다양한 행사와 최고 품질의 순창산 블루베리가 관광객을 유혹한다. 먼저 배움마당에서는 블루베리 재배 우수농가 재배 및 노하우 전수와 블루베리 품종 특성 설명회가 진행돼 블루베리에 대해 깊게 알 수 있는 시간을 갖는다. 관광객과 함께 진행되는 즐길마당에서는 민속마을과 분양농장에서 수확체험이 진행되고 민속마을 주변에서는 보물찾기 행사도 열린다. 옛놀이 체험, 블루베리 비누 만들기, 블루베리 화분 만들기, 페이스페인팅, 블루베리 와인, 식초체험 등 다양한 체험행사가 진행된다. 파는마당에서는 블루베리 생과를 중심으로 블루베리 가공품, 블루베리 인절미, 슬러시, 목욕판매, 블루베리 초코파이 판매 등이 이뤄지고 순창의 다양한 농특산물과 발효커피 판매코너도 선보일 계획이다. 별빛마당에서는 블루베리 품종 전시회, 치유농업 전시, 치유농장 소개, 블루베리 재배 자재 전시도 진행될 계획이다. 군은 올해 블루베리 어울마당 개최 장소를 고추장 민속마을로 확대해 관광객들이 보다 쉽게 방문하고 또 주변 관광지원과도 연계해 어울마당의 다양성을 더했다. 고추장민속마을은 한옥과 집집마다 가득한 장독대가 정겨운 경치를 자아내며 그 자체로 볼거리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시, 농촌폐기물 집하장 확충 설치

남원시는 농촌 환경오염의 주범인 영농 폐비닐을 효율적으로 수거하기 위해 관내 마을 13곳에 7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농촌폐기물 공동집하장을 확충 설치했다. 그동안 농촌지역에 집하장이 설치되지 않아 농가에서 발생되는 폐비닐을 들뜬 곳곳에 방치하거나, 불법으로 소각하여 주변 환경오염으로 몸살을 겪어왔다. 특히 지난 2014년 20개소를 설치 운영하였으나, 금년에 농민들의 추가 설치요청에 따라 집하장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대강면 서석리 등 농촌마을에 13개소 추가 설치했다. 한편, 농촌폐기물 공동집하장 설치 이후 시민들은 폐비닐을 한 곳에 공동으로 모아 놓은 장소가 있어 수거가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올해 영농폐비닐 A급 90원~140원, B급 80원~120원, C급 70원~98원으로 인상했으며 농약빈용기도 개당 50원에서 100원으로 대폭 인상했다. /남원=유영철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치즈

별기에 출신 지정인 신부(Didier (Sersl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달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